

## 대도를 지킨 춘암상사의 생애

### 춘암상사의 가계와 입도하기까지

춘암상사는 포덕전 5년(1855, 철종6년) 2월 1일 충청남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114번지)에서 탄생하였다. 이름은 박인호(朴寅浩)로,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초명은 용호(龍浩)라 하였고, 자는 '도일(道一)'이다. '춘암(春菴)'은 동학에 입도한 후 포덕 40년(1899) 3월 10일 의암성사로부터 받은 도호이며, '상사(上師)'는 포덕 73년(1932) 8월 14일의 천도교 입시대회에서부터 받게 된 존호다.

포덕 24년(1883) 3월 18일 동학에 입도하여 의암성사와 손천민 등 11인과 함께 해월신사를 배알하였다. 의암성사는 상사보다 6살이나 연하로 23년에 입도하여 심신을 수련한 후 같은 시기에 해월신사의 장석에 나간 셈이다. 이때 해월신사부터 "제군들이 이렇게 입도를 하니 우리 도가 장차 크게 흥융하리니 지극히 수련하여 도의 근본을 깨달으라."라는 법설을 들었다.

상사는 이듬해 10월 해월신사의 명으로 의암성사와 함께 공주 가섭사에서 49일기도를 행하였다. 귀가해서는 의관을 정제하고 어육주초를 금하면서 10년을 정하고 독공과 연성을 행하였는데 잠을 잘 때는 잠이 깊이 들까 염려하여 낮자루를 베고 잠을 잤다.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월신사 장석을 찾아 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 대신사 신원운동과 동학혁명

포덕 34년(1893)에 수운대신사의 신원운동인 복합상소에 의암성사를 비롯한 강시원 손천민 김연국 등과 함께 수만의 교도를 거느리고 참가하였으며, 보은장내의 취회에도 덕의대접주로서 많은 교도를 거느리고 참가하였다.

포덕 35년(1894, 甲午) 11월 해월신사의 명에 따라 호서지방에서 기포한 5만의 동학군을 지휘하여 면천(沔川) 승전곡에서 일본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승전곡에서의 전승은 동학혁명에서 유일하게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이었다. 또 덕산 구만포와 신례원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25일 동학군은 홍주성을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전하여 동학군의 전사자가 3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춘암상사는 동학군을 해산하도록 하고 금오산에 토굴을 파고 삼동(三冬)을 지낸 뒤 김명배 김의형 엄주동 등과 같이 해월신사를 찾아 갔다. 그 뒤 충청일대의 접주들은 거의 관군에 사로 잡혀 총살되었거나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 해월신사 유해를 등에 지고

포덕 39년(1898) 1월 3일 의암성사와 함께 해월신사에게 신년 문후를 하였다. 이때 해월신사가 동자를 시켜 흰 평 한 마리로 식찬을 만들어 성사와 겸상을 주었다. 상사는 두 사람이

일치하라는 묵교(默敎)임을 깨닫고 식후에 의암성사에게 예를 갖추어 이후로는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였다. 의암성사는 상사의 뜻을 알았지만 6년이나 연상자인 상사의 절을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었고 상사는 성사 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다. 이때 해월신사가 “앞으로 덕산의 박인호는 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성사에게 말하였다. 이해 4월 6일 해월신사가 관군에 피체되자 상사는 김명배로 하여금 비용을 마련토록 하였는데 그는 홍주군 김주열의 논 10두락을 팔아다가 신사의 옥증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포덕 39년(1898) 6월 2일 해월신사가 교형(絞刑)으로 순도하자 이종훈과 김준식이 그 유해를 광희문 밖 공동묘지에서 거두어 송파 이상하(李相夏)의 산에 성분(成墳)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상하가 관의 지목으로 묘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를 요구하자, 41년 5월 1일 의암성사는 춘암상사로 하여금 해월신사 유골을 운구하여 광주 원적산(圓積山) 천덕봉으로 이장토록 하였다. 이때 춘암상사는 아침 일찍 상제차림을 하고 혼자서 송파로 향하였다. 해월신사 묘소에서 유해를 다시 칠성관에 모시고 칠포로 칭칭 감은 후 유지(油脂)로 싸서 등에 지고 석양이 되어 원적산으로 출발하였다. 상사는 빠른 걸음을 재촉하여 그날 밤으로 원적산에 당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세차게 쏟아져 도저히 옮길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 음고개 마루턱에 있는 외딴 주막집을 발견하고 처마 끝에 신사의 성골(聖骨)을 모셔놓고 죽장을 잡고 시립해서 비가 멎기를 기다리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주막집 주인이 상사의 거동을 내다보면서 ‘아무리 효자라도 저럴 수가 있느냐’면서 따뜻한 국으로 야참을 해주었다. 새벽이 되자 상사는 다시 유해를 지고 걸음을 재촉하여 원적산에 당도하자 상사를 기다리고 있던 의암성사를 비롯한 근처에서 모인 동학도들이 울분과 비통을 삼키면서 유해를 안장하였다.

7월에는 의암성사를 모시고 풍기로 이주하였는데 20일 이곳에서 의암성사는 설법식을 행하였는데 식이 끝나자 의암성사는 스스로 북접 법도주가 되고 김연국을 신도사, 손천민을 성도사, 그리고 박인호를 경도사로 정하였다.

#### 경자년(庚子年) 입도식

포덕 41년(1900, 庚子) 4월 23일 의암성사가 지평군 이종훈 집에서 문도들에게 “일찍이 해월선생 말씀에 ‘인시천(人是天)이오 도시 대선생주 무극대도’라 하신 명교에 의하여 오제(吾儕) 마땅히 양위선생 앞에 입도식을 거행함이 가하다.” 하고 입도문을 지은 후 상사로 하여금 입도의식을 행하게 하였다. 이때 상사가 “어찌 손천민으로 하여금 입도케 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먼저 명하시니까?”하고 묻자, 의암성사는 “이는 천의(天意)에서 출(出)함이라.” 하였다. 그리고 입도식이 끝난 후에 손천민에게 붓을 잡게 하여 쓴 「강서」(荷蒙薰陶 日月之光明……………侍天奉天 永世守志)를 상사에게 주었다.

#### 갑진개혁운동

포덕 42년(1901) 3월 상사는 의암성사를 따라 이종훈 홍병기 이용구 등과 함께 미국을 유람코자 하였으나 김연국이 불응하여 실행되지 못했다. 그 후 다시 10년을 정하고 외국에 나가 세계 문명과 정세를 살피고자 하여 일본에 체류하자 상사는 국내에서 도무(道務)를 책임지었고 성사의 체류경비를 조달하였다. 상사는 의암성사의 부름으로 손병흠 홍병기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일본으로 오는 도중에 손병흠이 부산에서 급사하였고 상사는 마관(馬關)에 내리자마자 관헌에게 붙잡혀 다시 송환되고 말았다.

45년(1904, 甲辰)에 상사는 홍병기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 의암성사와 개혁운동을 협의한 후에 귀국하여 7월에 중립회를 조직하고 16만 명의 교도로 하여금 단발혁의를 단행하는 갑진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의암성사는 귀국할 수가 없으므로 조선에서의 동학교도 통솔은 이용구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용구가 대세를 살피지 못하여 육군대장 장곡천(長谷川)의 고등통역으로 있던 송병준의 꾀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보회를 일진회(一進會)로 고쳐 운동을 하려하였으나 동학이 이용구의 손을 거쳐 송병준에게 팔려간 꼴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운동이 잘된다는 이용구의 편지만을 믿고 일본에 예금하였던 수십만 원의 거금을 아끼지 않고 모두 보내주었다. 그 후에 이용구가 하는 말이란 바로 “독립보호”라는 것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 천도교의 대고천하

포덕 46년(1905) 12월 1일 동학이 천도교로 선포되자 12월 5일 상사는 다시 일본 동경에 건너가 의암성사를 비롯한 권동진 오세창 등과 천도교대헌을 제정하고 교표(敎票: 교빙) 3백만 장을 인쇄하여 본국의 육임소에 보내는 등 총부설립을 준비하였다.

이듬해 포덕 47년(1906) 1월 28일에는 성사와 함께 귀국하여 2월에는 대헌을 반포하고 중앙총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원주직을 임명하는 등 교회조직을 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의 교세는 약 10만 명씩 두 곳이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이용구와 송병준에게 넘어가 있었다. 이에 천도교에서는 이용구 등 61명을 출교처분하고 교세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8~9개월이 지나자 이용구 측으로 간 교인의 과반수가 다시 돌아와 교세가 회복되자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하여 교세를 되찾게 되었다. 2월 10일에 도사와 육임을 선정하고 12일에 중앙총부직원을 종령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때 상사는 교장과 현기사 고문으로 임명되었다가, 포덕 48년(1907) 12월 10일에 차도주가 되었다.

#### 천도교 제4세 대도주 되다.

포덕 49년(1908, 戊申) 1월 18일에 의암성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아 제4세 대도주가 되었다. 상사는 동학에 입도 후 해월신사와 의암성사를 모시고 지성수도와 근면역행 그리고 사명 일호불위(師命一毫不爲)의 공적으로 천도교의 종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때 의암성사가 상사를 격찬하여 “춘암 대도주는 생각하는 것은 나만 못하지만 대도를 지키는 데는 내가 춘암만 못하다.”, “장벽을 향해서 말한 비밀은 새어나가도 춘암에게 말한 비밀은 새지 않는다.”,

“춘암은 밤에 만져 보아도 도(道)덩어리이다.” “내가 한강을 그대로 건너 걸어가라 하면 춘암도주는 서슴없이 걸어 들어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제1회 대도주승통기념식에서 의암성사는 말하기를, “오늘 제군들이 거행하는 이 승통기념은 천(天)이 수운대신사에게 전하신 오심즉여심(오심즉여심)의 심법이나, 수운대신사가 계해년 8월 14일 해월신사에게 전하신 심법이나, 해월신사가 정유년 12월 24일에 내게 전해주시는 심법이나, 내가 작년 무신년 1월 18일에 전해 준 심법은 동일한 심법이니 여등은 그와 같이 믿고 춘암대도주를 보좌하여 대도발전에 진심갈력하라” 한 바 있다.

상사는 대도주가 된 후 경향각지에 교리강습소와 사범강습소를 개설하여 많은 교역자를 양성하였다. 포덕 51년(1910) 중앙총부를 송현동에 신축하고, 스승님들의 존호를 대신사, 신사, 성사로 추존하는 동시에 3대 기념일과 순도기도일을 정하였다. 또 교회기관지로 교회월보를 창간하고 출판문화를 위해 보성사인쇄소를 운영하는 한편 개벽을 비롯한 수많은 잡지를 발행하였다. 또한 보성전문학교를 비롯하여 보성중학, 보성소학교, 동덕여학교, 용산 문창학교, 마포 보창학교, 대구 교남학교, 일신여학교 등을 인수 운영하였으며, 청주에는 종학학교를 설립하고, 용산 양영학교, 양덕학교, 전주 창동학교 등에는 보조금을 주는 등 육영사업을 하였다.

포덕 52년(1911)에는 교회제도로 성경신법의 사과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의 오관을 제정하였으며 포덕 53년(1912)에 종학강습소를 설치하였다.

#### 봉황각(鳳凰閣)과 상춘원(常春園)

포덕 52년(1911) 11월 고양군 우이동의 임야를 매입하고 이듬해 3월 이곳에 수도연성을 위한 장소로 봉황각을 건축하였다. 의암성사의 3·1운동 구상도 이곳에서 했으며, 이곳을 거처간 지도자들이 3·1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포덕 53년(1912) 4월부터 55년(1914) 3월까지 중앙과 지방의 교역자 483명을 7차로 나누어 총인원 483명의 수도연성을 시켰다. 연성을 마친 전국의 교역자들은 270여개의 각 교구에서 후일 3·1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포덕 56년(1915) 8월에 동대문 밖에 있는 박영효의 저택과 9천여 평이 되는 정원을 매입하고 가옥을 수리하고 정원을 정리하여 이름을 상춘원이라 하고 정자를 만화정이라 하여 11월 17일에 낙성식을 가졌다. 기념일에는 원유회를 개최하고 교회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사용케 하여 유명한 곳이 되었다. 의암성사는 출옥 후 환원할 때까지 이곳에서 요양을 하였다.

포덕 63년(1922) 의암성사가 환원하자 가회동에 있던 성사의 가옥은 보성초등학교에 기부하였고, 상사의 가옥은 교회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매각하였다. 그리고 상사는 이곳 상춘원에서 68년(1927) 4월경까지 살다가 보성전문학교에 넘겨주게 되었다. 상사가 이곳에 사는 동안 교회분규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포덕 67년(1926) 6·10만세운동으로 가택수색을 당하는 등의 수난을 겪었다.

#### 3·1독립운동과 태평양 회의

포덕 59년(1918) 12월 상사는 3·1운동을 위해 교인들에게 새해 1월부터 49일 특별기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울 해주 의주 길주 원주 경주 서산 전주 평강 등지에서는 독신 교인 4명씩을 선발하여 만일에 대비시켰으며, 대교구에는 반드시 등사인쇄기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 전국교구장에게 명하여 49일 기도가 끝나는 이듬해 2월 22일 후에는 교구상황 보고를 겸해 상경하도록 명하였다. 상사는 독립운동의 사후 대책으로 교회를 당부하는 성사의 유시문에 따라 표면적으로 독립운동에는 가담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사는 2월 21일 독립자금 5천원을 기독교 측에 제공하고 또 독립선언문과 조선독립신문을 보성사에서 인쇄하여 배포하는 등 3·1독립만세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대표 48인중 1인으로 피체되어 1년 9개월간의 옥고를 치루었다. 옥중에서는 손에 염주를 놓지 않고 주문을 외우면서 지냈다.

포덕 61년(1920) 10월 21일에는 의암성사가 출옥하고, 30일에는 상사가 출옥하였다. 출옥한 후 12월 말에는 3년 전에 시작한 경운동의 중앙대교당과 중앙총부 본관을 준공하였다.

춘암상사는 포덕 62년(1921) 9월 태평양회의에 청년회장 정도준 등을 대표를 보내고 자금을 모집코자 하였으나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조국독립에 관한 활동을 하라'는 지령이 있음을 포착한 일제는 천도교 측의 가담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사를 경기도 경찰부에 소환하기도 했다.

## 6·10만세 운동과 신간회 운동

포덕 62년(1921) 12월에 교회제도가 대천에서 종현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도주의 명칭이 교주로 변경되어 포덕 63년(1922) 1월 18일에 교주취임식을 거행하였으나 교회가 점차로 분규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5월 12일 의암성사가 상사에게 교회를 부탁하되 "교회제도는 아주 내가 정해준 대로 행하라. 나는 다만 춘암만 믿노라."하고, 상사와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에게 말하기를 "도에 대해서는 춘암이 있으니 염려할 바 없거니와 군등 3인이 춘암교주를 보좌하여 나아가면 교내외사를 물론하고 염려할 바 없으리라."하였다. 또한 15일에는 총부직원 일동에게 "총부일동은 춘암교주를 믿고 춘암은 총부를 잘 지도하여 교회 장래를 선운(善運)하라." 하였다.

그러나 의암성사가 환원한 후 교회는 분규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포덕 65년(1924) 대신사출세백년을 맞아 기념관을 건축하여 경운동의 천도교중앙총부는 그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포덕 67년(1926) 6월에는 일제의 가혹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에 맞서는 3·1운동 이후의 대표적인 항일민중투쟁인 6·10만세운동을 사회주의 진영과 함께 전개하였다. 이해 5월, 조선공산당과 천도교가 연합하여 6월 10일의 융희황제 국장일을 기회로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이때 상사의 조카인 천도교청년동맹의 박래원이 격문 10여만 매를 인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독립단'이란 도장을 날인하여 58개 지방에 배부하였다. 박래원은 이때 사용한 도장을 상춘원에 숨겨 두었다가 총부는 물론 상춘원까지도 수색을 당하여야 했다.

또한 천도교는 68년(1927) 2월 15일에 「민족단일당」 또는 「민족협동전선」이란 기치로 창

립한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의 창립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때의 상황이 거족적인 민족운동 자금을 어느 특정 개인이 부담하거나 찬조하기는 어려웠고 이를 맡을 만한 단체는 천도교와 기독교가 있었으나 기독교는 종파가 많고 재력이 약해서 사실상 자금부담 능력이 없어 결국 천도교가 맡아서 하게 된 것이다. 천도교는 신간회 본부와 경성 지회에서 뿐 아니라 각 지방의 지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천도교 청년총동맹대표이며 신간회본부 간사로 활약한 상사의 아들 박래홍은 포덕 69년(1928) 10월 괴한에게 피살되었다.

의암성사의 유지로 대교당을 지키다.

일제 말인 포덕 78년(1937) 1월경에 교회에서는 대교당을 그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경성 여자의학강습소(현재의 운현궁 오피스텔)에 18만원에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상사는 의암 성사의 유지라 하여 설령 어느 누가 죽인다고 해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만약 이때 상사가 의암성사에 대한 유지를 저버렸다면 오늘날 대교당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일제 패망을 기원하는 멸왜기도

상사는 포덕 77년(1936) 8월 14일 지일기념을 맞아 각 지방에서 상경한 두목들에게 일제가 멸망할 것을 기원하는 비밀기도를 전체 교인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다. 상사는 『안심가』의 구절을 인용하여, ‘무궁한 내 조화로 개 같은 왜적 놈을 일야 간에 멸하고서 한(汗)의 원수까지 갚겠습니다.’라고 조석으로 지성껏 심고하라.’는 밀명을 내렸다.

또한 이 멸왜기도와 병행해서 특별기도와 특별성금을 하도록 하였는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조직을 통하지 않고 지방두목들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1년여 동안이나 계속되었어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포덕 79년(1938, 무인) 2월 17일 황해도 신천경찰서에 발각되고 말았다. 3월에 천도교인들에 대한 대검거 선봉으로 3백여 명이 검거되었고 상사도 병상에서 신문을 받았다.

신구 양파의 합동과 상사의 환원

포덕 81년(1940) 4월 4일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교회가 합동되었다. 오랫동안 내수동 자택에서 병석에 누워있던 상사는 4월 3일 오후, 교회가 합동한다는 말을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합동을 한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환원했다. 상사는 임종할 때까지 입에서 주문 외우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양측 간부들이 논의하여 장례는 교회장으로 결정하고 장의위원장에 권동진을 추대한 후 장의부서를 작성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였다. 장의위원회에서는 상장은 조선의복에는 흑령, 양복에는 흑완장으로 하되 성복일로부터 장례일까지는 천도교인은 모두 예복(禮服)으로 만드

시 상장을 착용하며 장례 후 105일까지는 정복(情服)을 수의적으로 할 것과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4월 7일 상오 9시에 내수동에서 정광조의 집례로 성복식을 거행한 후에 운구가 발인되어 10시에 중앙대교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하였다. 영결식을 마치고 상여는 갈현리로 향하였는데 유족 외에 1천여 명의 조객들이 뒤를 따랐다. 오후 2시에 묘지에 도착하여 3시에 하관 안장하였는데 이 때 최린이 친필로 「천도교 4세교주 법종 춘암상사 박인호지묘(天道教第四世教主 法宗春菴上師 朴寅浩之墓)」라고 쓴 지석을 묘정에 묻었다.

상사 환원에 즈음하여 권동진은 “의암성사께서 ‘도는 도주장(춘암상사)이 계시니 염려가 없고 다만 실암(권동진)·한암(오세창)·여암(최린) 3인이 합심하면 교증사는 물론이요 천하사라도 어려울 것이 없을 터이니 3인이 일심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성사의 유훈을 생각하며 오늘 대합동이 성립된 것을 보게 될 때 진실로 춘암상사는 성현이시다.”라 하였다. 정광조는 “나는 의암성사와 춘암상사께서는 그 도법에 있어서 전혀 이신일체(異身一體)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최준모는 “춘암상사는 전 생애를 통하여 언제나 한결같이 도(道) 그대로, 유훈 그대로를 실행한 것이 바로 위대한 도법이요, 우리의 스승이 된다.”고 하였다. 또 이돈화는 “춘암상사의 성령은 지금 성령으로 출세하여 백만 교도의 영혼 속에 부활되었을 것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포덕 81년(1940) 4월 갈현동에 있던 묘소는 105년(1964) 3월 28일 포천군 무봉리로 이장하였고, 포덕 107년(1966) 4월 3일 환원 제36주기를 맞아 중앙총부에서 묘비를 건립하였으며, 포덕 124년(1983) 5월 7일에는 중앙총부가 후원하고 ‘춘암상사 유허비건립위원회’가 주관하여 탄생지에 유허비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포덕 131년(1990) 8월 18일 국가에서는 춘암상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일상에서의 춘암상사 면모

춘암상사는 성품이 강직하여 한번 마음으로 정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굽힐 줄을 모르고 그대로 밀고 나가 완성을 보았다. 의암성사가 한번 명을 내리면 그 즉시 실행을 하였으며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상사의 일상사는 질서정연하여 매일 오전 9시에 총부장실로 출근하여 교무보고를 빠짐없이 받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세면을 한 후 주문을 묵송하고, 7시에 조반을 한 후 곧바로 의암성사 댁으로 갔다. 의암성사는 8시에 조반을 하였는데 이 시간에 두 분이 교회운영에 대한 중요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강구하였다. 의암성사의 조반이 끝나면 상사는 총부로 출근하여 교회를 처리하고 정오에 퇴근하였다. 오후 1시에 점심을 한 후에 사랑채에 나가 내방교인들을 접견하였는데 손에는 언제나 염주를 들었고 어떤 경우에도 눕거나 다리를 뻗는 일이 없었다. 제자들이 사랑채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어도 들여다보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수도생활에만 정진하였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에도 누가 신과 구과에 대한 비방을 하면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남을 비방하면 되겠는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주문을 더 생각하라.”고 하여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의암성사가 가회동 취운정에서 활을 쏘고 귀가 길에 상사 댁에 잠시 들렀다가 상사에게 “도주장(道主丈)도 가끔 활이나 쏘러 다닙시다.” 하였다. 그러자 상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동안에 주문이나 더 읽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오나, 실천궁행(實踐窮行)하고 대도(大道)를 지키는 것은 춘암도주가 나보다 나오니라.”고 격찬하였다. 축성(築城)이 아무리 잘 되어도 수성(守城)을 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과 같이 의암성사와 춘암상사의 관계는 마치 ‘축성’과 ‘수성’의 관계라 할 것이다.

## 춘암상사 어록

### 1) 종문심법의 설법

포덕 68년(1927) 8월 14일 지일기념을 맞아 “오늘 이후로는 종문심법을 어떠한 한 개인에게 전수하지 못할 것이며, 이 설법은 5만년 영원히 천도교인에게 일반적으로 심법을 전수하는 것이다.”라는 설법을 하였다.

포덕 74년(1933) 2월에는 종문심법(宗門心法)이 확고함을 천명하는 「윤고(輪告)」를 내외에 반포하였다.

[윤고] - 만사는 생각과 실재가 전연히 다른 것이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스스로 생각하기를 육신의 나는 십년 전후에 변함이 있는 나이, 정신의 나는 십년 전 그 때의 나와 십년 후 오늘의 내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나이이다. 일생의 출처진퇴(一生出處進退)를 교회에 바친 나로서 이제 늙음을 빙자하고 여러분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은 나의 본분이 아니라 하였던 것이다. 어찌 알았으랴. 실제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 모든 것이 생각과는 전연 반대이다. 어떻게 하여야 선성사(先聖師)의 최후 유탁(교주종신직)을 다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하여야 동덕의 기대를 만분지일이라도 비우지[空] 아니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임무가 과거보다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십년이라는 세월이 그다지 장구한 시간이라마는 오늘의 교회는 벌써 거성이원(去聖已遠)한 교회인지라, 오호(嗚呼) 선사(先師)의 호흡은 이미 끊어지고 선사의 동정은 이미 아득하여졌다. 하물며 그동안 시대의 추이와 사상의 변천된 것은 십년 간 강호에 누웠던 나로서 이것이 과연 꿈의 세상이 아닌가를 의심치 아니할 수 없는 오늘의 세상이라. 날이 갈수록 태산을 지고 얇은 얼음의 바다를 임한 듯이 의심과 두려움이 새로워질 뿐이다. 그러나 삼세신성이 전수하여 주신 심법이 이에 있고 교회 전체의사를 대표한 교헌이 완비하여 있나니 다시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리요. 오늘 나의 임무는 오직 백만 동덕과 한 가지 신성의 심법 그대로를 신앙하는 그것이며, 교헌의 규정 그대로를 시행하는 그것뿐이다. 이외에 다시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두렵건대 현숙하고 총명한 백만 동덕을 가진 교회로서 다시 이 늙은 몸을 일으킨 것은 그 본의가 오로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현명한 제군들이, 이 늙은 몸을 일으킨 그 마음과 이 늙은 몸이 이제 제군들에게 그리운 마음이 서로 합하여 일심이 되어 가지고 각자의 임무를 따라서 성패득실은 진리 그것에게 맡기어 버리고 반드시 그 결과를 짓는 실행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실행이 없는 결심은 그것이 공상이고 결심이 아닌 실행은 그것이 요행이다. 만천하 최악은 일체가 다 이 공상과 요행으로부터 일어나느니 우리의 임무는 무엇보다 먼저 진리 때문에 일생을 실패로 마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리가 아닌 성공은 그것이 영원한 실패인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믿을지어다. 우리 현명한 동덕이여!

2) 거짓말을 하지 말라.

춘암상사가 수창동(내수동)에서 살았던 포덕 70년대에는 지방교인들이 상경하면 상사에게 문후 차 인사를 하고 유숙도 하곤 했는데 이때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음은 78년(1937) 2월 25일에 찾아온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사람의 굴신 동정하는 것이 조화이고 별다른 조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동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일이라고 저희 마음대로 아니 될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다른 조화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 동정하는 것이 조화라는 것을 알라.

또 3월 12일에는 문후 차 찾아온 최동근(崔東根)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교인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 지금 교세를 보면 재정이 미흡하여 교세가 미약한 것 같으니까, 도가 없는 줄 알고 신앙이 미약한 사람도 혹 있겠으나 절대로 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가 없게 되면 한울이 없게 될 것이니 어찌 한울, 즉 천지가 없어질 이치가 있겠는가? 한울이 없으면 나도 없고 세상 또한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용렬하다고 하지마는, 나는 물질에 절대로 욕심이 없다. 참으로 나는 홀로 기쁘고 좋은 생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때와 시기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여간 기쁘지 아니하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때와 시기를 맞이하리니 물질과 과학과 사회적 관념에 이끌리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수도하라. 한신이 대장이 되니 한나라 사람들이 대경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교인도 불의에 도통하는 자가 속출하리니 사람을 속이지 말라.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십년공부가 무효가 되며 또 십년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때에는 ‘생각하시는 모신 내 한울님이 본래 오신 한울님을 받드셔서 먹고 굴신 동정하는 것이 곧 나인 줄을 투철히 깨달았으므로 생각하시는 모신 내 한울님의 은혜를 길이 잊지 않겠습니다.’하고, 식고의 이치를 알고 염념불망하면 도통이 그 중에 있느니라.

천하만사는 생각과 실체가 다르니라. 성패득실은 진리에 맡겨두고 결과를 짓는 데는 실행이 있어야 되느니라. 실행이 없는 결심은 공상이고 결심이 없는 실행은 요행이니라. 천만 최악은 공상과 요행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진리, 그것 때문에 일

생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성공이요, 진리가 아닌 성공은 영원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니 현명한 동덕들은 길이길이 인식할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손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 손에 든 물건을 놓으면 그 물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울님의 간섭과 영기 중에서 사는 것이니라.

### 3) 기타 평소의 어록

- 도를 알려면 먼저 내가 나 된 이치를 투철히 알라.
- 물[水]은 틈이 없나니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틈이 없느니라.
- 제 할 일 다 하고 잘 잠을 다 자고 도는 언제 닦겠는가?
- 제 몸에 모신 한울님을 찾아 한울이 되어라.
-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살리라.
- 염념불망하여 항상 한울님 생각을 게을리 하지 말라.
- 사불거천(思不去天) 천사래(天思來)니라.
- 불리이주산적지(不離二主山的知) 청아어(聽啞語)이니 군등(君等)은 청아어(聽啞語)하라.
- 유형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무형한 한울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 한울님은 정성이 지극한 사람과 친하느니라.
- 만사는 시기가 있나니 오직 한울이어야 하느니라.
- 내가 비록 죽더라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면 한울님이 좋아 하시느니라.
- 군등(君等)은 가사를 객체로 삼고 천덕사업을 주체로 삼으라.
- 도를 잘못 믿으면 한울님이 벌을 주시느니라.
- 오늘 우리 교인이 모두 한울이 되어 마음만 통일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아니 될 것이 없느니라.
- 밥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심고하면 잘 하는 심고이니라.
- 천하없어도 제 한울은 못 속이느니라.
- 음식을 겸상해서 먹을 때 맛이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제 혼자 다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 술좌석에 청하지 않거든 가지 말라.

<출처 : 이동초, 『대도를 지킨 춘암상사의 생애』, 『신인간』 통권688호, 2008. 1> 정리

## 춘암박인호상사 약력

포덕전 5년(1855) 2월 1일 : 충청남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114번지)에서 탄생하시다. 아버지는 박명구, 어머니는 방씨이다. 12세때 남씨 부인과 결혼하시다. 29세에 동학에 입도하시어 의관을 벗지 않으시고 10년간을 독공수련하시다.

포덕 35년(1894) : 갑오동학혁명 기포에 참가하시어 5만의 동학군을 통솔하시며 덕의 대접주로 활약하시다.

포덕 48년(1907) 1월 18일 : 차도주직을 받으시다.

포덕 49년(1908) : 대도주직을 선수 받으시다.

포덕 60년(1909) :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 분으로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시고 이듬해 10월 31일에 출옥하시다.

포덕 79년(1938) : 멀왜기도를 지도하시다.

포덕 81년(1940) : 4월 3일 환원하시니, 향년 86세이시다.